

# 광양시, 공공비축미곡 1188톤 사들여

### ‘새일미·새청무’ 2개 품종만 수매 가능 10월~12월까지 조사후 연말까지 정산



광양시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1차 배정물량이 1,188톤으로 결정되어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매입 업무 추진에 나섰다. 설명회에서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과 개정된 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 등 출하농가에 대

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참석자들 간의 업무 공유시간을 가졌다.

광양시의 올해 벼 재배면적은 1,248ha로 지난해 보다 34ha의 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되었고,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 인센티브 물량은 향후 농식품부가 해당농가에 직접 2차로 배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새 포장재료만 수매가 가능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일미, 새청무’ 2개 품종으로 이외의 타 품종 20%이상 혼합으로 품종검정 검사에서 적발되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된다.

특히, 품종검정 시료채취 방식이 바뀌어 한 포대에서 채취하던 방식에서 여러포대에서 혼합으로 600g 채취해 300g은 검사용으로 나머지 300g은 이

의 신청용으로 읍면동에서 보관한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수매직후 지급하고, 올 10월부터 12월 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2월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정산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톨백저울 보조사업을 마무리하고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에서는 매입대상 이외의 품종이 혼합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 매입검사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열려

### 여수시, 국제 네트워크 통한 COP28 유치 기반 강화

여수시가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천명하며 COP28 유치에 한 발 다가섰다.

도시환경협약(UEA, Urban Environmental Accords) 정상회의는 내년 9월중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며, 국내·외 회원도시, UN기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한다.

개최회식을 비롯한 본회의, 주제별 분과회의, 집행위 등 회의를 진행하며, 여수시는 UEA 여수선언문을 발표하고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8일 시정실에서 UEA사무국 윤원태 사무총장과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직후 권 시장은 기후·환경 토크콘서트를 통해 2021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여수시를 국내·외 회원도시에 소개하고, 여수

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와 COP28 유치 등 현안사항을 홍보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토크콘서트는 당일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UEA사무국은 영상을 영문 자막 작업 후 국외 회원도시에 배포 홍보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여수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우뚝 서고, COP 참가국과 UN기구 등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51개국 156개 도시가 가입된 도시환경협약은 도시 환경문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논의를 위해 격년으로 도시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여수시는 지난 7월 UEA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용 기자

## 순천시의회, ‘전남 제1의 도시 순천 호남 3대 도시’ 발돋움 기대

###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순천시가 9월 말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연속 전남 제1의 인구 도시로 나타난 데 대해, 인구정책을 추진해 온 순천시와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연내 호남 3대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27만 9,598명을 기록했던 순천시 인구는 올해 3월 말 28만 1,873명으로 여수시를 제치고 전남

제1의 도시로 올라섰다.

이후 4-6월 여수시에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7월에 1위 자리를 되찾은 이후 3개월 연속 전남 제1의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9월 말 통계를 살펴보면 순천시 인구는 28만 2,200명으로 28만 545명을 기록한 여수시와의 격차를 1,655명까지 벌리며 1위 자리를 굳혔다.

한편, 호남 제3의 도시인 익산시

(28만 3,064명)와는 864명 차이로 간격을 좁혔다.

더욱이 익산 인구는 3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이른바 올해 안에 광주, 전주와 함께 순천시가 호남 3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전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이때, 순천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태 도시를 지향하며 정

주여건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허석 시장과 인구정책팀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순천시를 함께 만들어 온 28만 순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시가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호남 3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제3회 분청사기 공모전 입상작 발표

### 김설화 작가 ‘분청사기 귀얄파도문 대편병’ 대상 선정



고흥군은 고흥 분청사기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추진한 '제3회 분청사기

공모전'의 입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말에 시상식과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국내외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적인 장식기법인 귀얄기법과 담방기법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 전통성과 예술성, 창의성, 재료성을 살린 작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6인을 위촉하여 1·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특선 6명, 입선 등 총 45명이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되었고, 대상은 김설화 작가의 ‘분청사기 귀얄파도문 대편병’이 선정되었다.

대상에 선정된 ‘분청사기 귀얄파도문 대편병’은 고흥의 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형태와 기법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귀얄장식기법이 자유로우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생동감과 울동감을 주며, 재료와 표현방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된 김설화 작가는 “고흥에서 출토된 점토와 화장토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용기와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고흥 분청사기가 많이 알려지고 창의적인 분청사기의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공모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출품작품들을 통해 고흥 분청사기 장식기법과 도자예술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용 기자

## 버스·택시 승강장, 새로 설치·교체

### 광양시, 보온막 발열의자 설치 등 이용객 편의 증진 나서

광양시는 최근 버스·택시 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5개소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후화된 승강장과 이용수요 대비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승강장 신규·교체 설치했다.

또한,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시내버스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버스승강장 일제 청소와 293개소에 보온막을 설치하고, 승강장 10

개소에 발열의자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버스 승강장에 발열의자 설치를 확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에어커튼 설치해 시민들이 무더위에도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양근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의 증진을 위해 승강장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문명

